

금속노동자

ilabor.org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발행일 2026.2.5. 발행인 박상만 위원장 주소 서울 중구 정동 22-2 6층 전화 02-2670-9507



- 02 박상만 위원장 인터뷰
- 03 금속노조 14기 임원 소개
- 04 지엠부품물류지회 투쟁 /
금속노조 원청교섭 어떻게?

노동조합 기본기 회복으로 힘 있는 금속노조 만들겠다

[인터뷰] 박상만 금속노조 14기 위원장 … “올해 업종교섭 틀 만들 것”



1월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박상만 금속노조 14기 위원장은 임원 선거기간 “업종별 공동 교섭·투쟁으로 산별교섭 완성에 가까이 가겠다”라며 업종교섭 구상을 밝혔다. 바쁜 한 달을 보낸 박상만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해 힘이 되는 금속노조, 힘 있는 금속노조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보낸 한 달, 어떤가.

“광주글로벌모터스,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등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을 찾아봤다. 올해 투쟁 계획을 세우는 일도 바삐 돌아간다. 다양한 현장을 찾아 현안을 들었다. 금속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화를 앞둔 기업노조도 만났다.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조합원들 만나며 힘을 냈다. 열심히는 물론이고 위원장으로서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조합원이 인정하는 금속노조, 현장이 동의하는 투쟁”

임기 동안 어떤 금속노조를 만들고 싶나.

“조합원이 믿고, 조합원이 인정하는 금속노조를 만들고 싶다. 노동조합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금속노조는 대중조직이고, 민주노조다. 조합원 의견을 기반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자신들 요구를 구체적으로 대변할 때, 조합원들은 노동조

합을 믿고 움직인다. 현장과 밀접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다시 만들자. 모으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거기간 약속했다. 조합원 뜻이 담긴 의제를 들고서 현장을 조직하겠다.”

“업종교섭은 산별교섭 완성을 향해 가는 중간 과정”

**업종별 공동 교섭·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상 이유와 추진 방향은**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중앙교섭 참여 조합원 수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재검토와 재설계가 시급하다. 물론 산별교섭을 포기하거나 그만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해 보자는 거다.

업종교섭은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근무 체계를 가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내세우며 함께 투쟁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업종별 공동 투쟁과 승리를 힘으로 산별교섭, 초기업 교섭으로 가겠다는 구상이다.

금속노조 조합원 사이에서 가장 큰 교집합, 공통점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업종’이다. 금속노조는 규약상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분과위원회를 두고 업종분과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 업종별 공동사업 경험을 축적했기에 공동 교섭, 공동 투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올해는 업종별 공동투쟁군 마련 등 업종교섭 틀을 만든다. 업종교섭 요구 역시 해당 조합원들 의견을 중심으로 꾸리겠다.”

금속노조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안팎으로 힘이 없다. 노동조합이 정부를 압박하고 자본을 교섭장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현재 금속노조는 정부 노동·산업정책과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제대로 개입할 수 없다.

노동조합 내부는 어떤가. 조합원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탓에 조합원 관심에서 금속노조가 멀어졌다.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다.

결국 노동조합 기본기 회복으로 조합원들과 공감을 이루고 ‘힘 있는 금속노조’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정부와 자본에 ‘힘쓰는 금속노조’가 가능하다.”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금속노조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 한 달 동안 현장 다니며 위원장이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개인 박상만으로는 부족하다. 18만 금속노조가 모여야 파괴력을 갖는다. 위원장으로서 투쟁 의지는 명확하다. 금속노조 깃발 아래 모여달라. 더 늦기 전에 다시 승리하는 금속노조를 만들자.”

금속노조 14기 임원들을 소개합니다

2월 23일
156차 중앙위원회
동의 · 임명 예정



황영선 수석부위원장
(기아자동차지부)

- 자동차업종분과위원장
- 현장전문위원장
- 법률원 운영위원장



김규진 부위원장
(현대중공업지부)

- 징계위원장, 통일위원장
- 경기 · 울산지부 담당
- 복수노조 사업장 담당
-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정상만 부위원장
(충남지부 현대제철
당진하이스코지회)

- 철강업종분과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충남 · 포항지부 담당



구진성 부위원장
(한국지엠지부)

- 정치위원장
- 사회연대위원장
- 광주전남 · 대전충북지부 담당
- 자동차업종분과위원회 활동



김병철 부위원장
(현대자동차지부)

- 신분보장기금심의위원장
- 노동연구원 운영위원장
- 경주 · 인천지부 담당
- 자동차업종분과위원회 활동



이태현 부위원장
(현대중공업지부)

- 조선업종분과위원장
- 교육위원장
- 교육연수원 운영위원장
- 경남 · 부산양산지부 담당



고은하 부위원장
(한국지엠지부)

-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장
- 여성위원장
- 서울 · 전북지부 담당



김형수 부위원장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간접고용비정규사업위원장
- 미조직사업위원장
- 열사정신계승특별위원장
- 구미 · 대구지부/강원지역 담당
- 원청교섭 투쟁본부 활동



허원 사무처장
(한국지엠지부)

- 단체협약위원회
- 원청교섭 투쟁본부장
- 고충처리위원장
-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위원장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

노조 만들자 집단해고? ‘노조 파괴·불법파견 은폐’ 한국지엠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우진물류)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금속노조에 가입, 지엠부품물류지회를 세웠다. 근속 연수가 늘어도 제자리인 기본급 158만 원, 강제 임업 등 노동조건 개선이 절실했다.

지회와 우진물류가 단체교섭을 열자, 원청 방해가 시작됐다. 도급계약을 차일피일 미뤘다. 고용이 불안해진 노동자들은 같은 해 10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다짜고

짜 한국지엠은 우진물류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노동자 120명을 해고했다. 한국지엠은 20년간 하청업체를 바꿔도 노동자 고용은 보장했다. 노조가 생기자 한국지엠은 고용승계 관행을 스스로 깰다. 명백한 노조 파괴, 불법파견 범죄 은폐다.

“밤새 물류센터 지키는데, 정말 춥고 힘듭니다. 그래도 꼭 이기고 싶어요. 한국지엠이 해도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지엠부품물류지회는 세종물류센터와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진짜 사장’ 한국지엠을 향해 부당해고 취소와 고용승계를 외치며 농성 중이다.

지엠부품물류지회 요구

- 집단해고 철회 및 즉각 고용승계
- 세종물류센터 직영화 및 정규직 전환
- 노사교섭으로 정규직 전환 방식 등 결정
- 불법파견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2026년 원청교섭 원년을 향해! 사용자 권한과 책임 일치 필요…금속노조, 어떻게 준비하나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한 금속노조 24개 사업장이 지난 1월 현대차 등 원청사 1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소속 조합원 수는 7천 명이 넘고, 해당 하청업체로 보면 143곳이다. 참여 규모는 계속 늘어난다.

3월 10일 발효될 개정 노조법 2조는 가짜 사장 앞세워 노동자 부리는 ‘진짜 사장’에게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린다. 이미 법원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

는 하청 노동자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라고 판단해 왔다.

조만간 재벌사를 비롯한 원청 사용자와 금속노조가 교섭장에 마주 앉게 될까? 사용자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법 위반이나, 그들을 교섭장에 나오게 하는 일부 터 만만찮다. 하청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떠올려보면, 사용자들이 어떻게 버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노동자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싸우지 않으면 개정 노조법도 쓸모없다. 20년 투쟁 결과로 노조법을 개정했으나, 이제 진짜 사장을 상대로 요구하고 투쟁할 ‘판’이 열렸을 뿐이다. 원청을 교섭에 나오게 하는 것도, 사용자 책임을 강제하는 것도 결국 노동조합 조직력과 투쟁에 달렸다.

싸움은 ‘선빵’이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0월 ‘원청교섭 투쟁본부’를 만들고 머리를 맞댔다. 토론, 의견 수렴, 투쟁 준비 등을 통해 올 1월 빠르게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권한과 이의만 누린 채 책임지지 않는 원청 사용자들! 금속노조는 현장 분노를 모아 투쟁 태세를 갖추고 정부의 교섭 촉진 역할을 끌어내겠다. 조합·지부·사업장이 긴밀히 소통하며 차근차근, 힘차게 투쟁할 계획이다. 또 3월 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원청교섭 실질화에 보탬이 될 산별교섭 요구를 만드는 중이다. 금속노조 전체 힘으로 원청교섭 물꼬를 틀 것이다.